

<div>2026년 7월, 출범 확정</div> <div>제물포구·영종구</div> <div>서구·검단구</div>		<div>보도자료</div> <div>2024년 2월 14일(수)</div> <div>총 2매</div>		<div>이제는 인천입니다</div> <div>2025 APEC INCHEON</div>			
담당부서	청년정책담당관	담당자	<div>• 청년지원팀장 차숙경 ☎440-2886</div> <div>• 담당자 천지혜 ☎440-2888</div>				
사진(이미지)		<div>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있음</div>		참고자료		<div>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있음</div>	
보도시점	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			

인천시, 3월부터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
- 인천 청년 1만 6천여 명 상해보험 혜택 ...휴가와 외출 시에도 보장 -
- 상해·질병으로 인한 사망, 후유장해, 입원 일당 등 11개 항목 -

인천광역시시는 군 복무 중인 인천 청년들의 병역 이행에 대한 자부심을 높이고 사회보장망 구축을 위해 오는 3월부터 현역 군 복무자를 대상으로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한다고 밝혔다.

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은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현역 군 복무 청년(현역병, 상근예비역)이면 별도 가입 절차 없이 군 복무 시작과 함께 상해보험에 자동 가입된다.

시는 군 복무 중인 인천 청년 1만 6천여 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.

휴가나 외출을 포함하여 군복무 기간 중 발생하는 상해·질병으로 인한 사망, 후유장해, 입원 일당 등 11개 항목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, 타 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.

보험금 청구는 군 복무자가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안에 보험사로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.

인천시는 보험사와 계약을 통해 보장항목 및 보장금액을 확정된 후 2024년 3월부터 보험을 개시할 예정이다.

이규석 시 청년정책담당관은 “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으로 청년과 그 가족들이 걱정 없이 병역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겠다”며 “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지속 확대해 나갈 것”이라고 말했다.